

2015

연구보고서-20

I S S U E P A P E R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의 변화

수행과제명 • 201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10차년도)

과제책임자 • 주재선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의 변화*

수행과제명 2015년 여성가족패널조사(10차년도)

과제책임자 주재선 연구위원

Tel: 02-3156-7192

e-mail: jjs2000@kwidimail.re.kr

요약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는 2006년부터 여성의 삶과 가족의 구조, 일자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구축하는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이며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 삶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주재선·문유경·김영택·김영란·송치선·이병훈·이윤석·강은수(2015). 2015년 여성가족패널조사(10차년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는 여성의 변화와 정책 등을 보다 정확히 포착하고 분석할 목적으로 2006년부터 전국 규모로 조사된 패널조사임. 이 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을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 과정과 사건(event)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 구축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 삶에 대한 학술적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에 시작된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로 여성의 삶에 대한 전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단조사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

- 첫째, 여성가족패널은 여성·가족정책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단자료임.
- 둘째,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과 가족의 역동적 측면을 포착하는 조사임. 기존의 조사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노동시장 수급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일, 가족, 여가의 조사내용도 성인지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음. 이에 비해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일과 가족, 일-가정 양립’, ‘여성의 노동과 여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등의 기존 범주 구분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역동적 삶의 궤적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조사·설계되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주의 분포를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는 40대가 31.4%로 가장 많고, 여성가구주 가구에서는 60세 이상이 4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여부별로 남성가구주는 60세 이상, 50대 순으로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34.1%, 13.4%로 많은 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60세 이상, 50대, 30대, 40대 순으로 각각 52.8%, 28.5%, 24.4%, 24.3%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
- 장기요양환자가 있는 가구는 4.2%(281가구) 수준이며, 장기요양환자수는 1인인 가구가 81.5%로 가장 높음. 장기요양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면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9.9%로 가장 많고,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돌보는 경우가 27.9%로 나타남.
-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30.4%로 가장 많고, 1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9.8%,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가구가 23.1%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

〈표 1〉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단위: 가구, %)

월평균 생활비	가구수	비율
150만원 미만	1,999	29.8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045	30.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1,552	23.1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61	12.8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61	3.9
계	6,718	100.0

- 전체 6,718가구 중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2,323가구에 해당하고, 이중 39가구는 비금융기관의 부채(사채, 회사를

통해 혹은 지인에게 빌린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를 포함)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59%,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23.4% 순으로 나타나며, 가계의 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은 교통/통신비가 20.3%, 교육비가 16.5%, 식비가 15.7%,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가 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 개인의 변화와 특징

● 결혼 계획

- 전체 미혼여성 중 결혼계획이 있는 비율은 14.0%이며, 취업여부별로 취업자는 계획 있음이 17.8%이며, 비취업자는 6.1%로 취업자의 결혼계획 있는 비율이 비취업자에 비해 11.7% 높음. 취업여부에 따라 결혼계획유무에 차이가 있고 이는 최근 청년고용문제로 인한 만혼, 결혼연기현상을 확인해주는 결과임.
-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가 34.5%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결혼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라서’(29.2%)임.

● 결혼생활 행복감은 10점 만점이며 전체 평균은 6.84점임.

-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가 7.20점으로 가장 높고, 40대(6.91점)-50대(6.72점)-60세 이상(6.59점)의 순임.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20점으로 가장 높고, 고졸 6.76점, 중졸 이하 6.58점의 순임.
- 취업여부별로 취업자가 6.86점, 비취업이 6.82점임.

〈표 2〉 여성응답자의 특성별 결혼 만족도(10점 만점)

(단위: 점수)

구분		평균
연령	30대 이하	7.20
	40대	6.91
	50대	6.72
	60세 이상	6.59
학력	중졸 이하	6.58
	고졸	6.76
	전문대졸 이상	7.20
취업여부	취업	6.86
	비취업	6.82

● 부부동반 활동

- 부부동반 활동을 살펴보면, 부부동반의 영화공연스포츠관람은 한 달에 1번 미만이 73.6%로 가장 많으며,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는 한 달에 1번 미만이 62.2% 임. 부부동반 사회봉사참여는 한 달에 1번 미만이 91.9%이었고 부부가 같이 시집가족과 만나기는 한 달에 1번 미만이 58.5%, 한 달에 1번이 25.7%, 2주에 한번 정도가 6.0%로 나타남. 반면 부부가 친정가족과 만나기는 한 달에 1번 미만이 61.6%, 한 달에 1번이 25.1%로 나타남.

● 남편과의 갈등 경험

-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심각한 의견 갈등 경험을 분석한 결과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삭힌다’는 가끔 있다가 42.0%로 가장 많고 다음은 거의 없다(39.4%)임. ‘배우자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항상그렇다(5.2%)와 가끔 있다(44.3%), 자주 있다(25.3%)를 합한 있는 경우가 74.8%이며, 없는 경우(거의 없다+한 번도 없다)는 25.2%로 있는 경우가 더 많음.
-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거의 없다가 47.7%, 한 번도 없다가 34.7%로 없는 비율이 82.4%임.

-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 다’는 한 번도 없다 69.3%, 거의 없다 28.0%로 대부분의 부부사이에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마찬가지로 한 번도 없다와 거의 없음을 합하여 97.6%임.

● 남편의 근무 후 귀가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

- 남편의 근무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65분으로 나타남. 시간량을 보면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80.2%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12.1%이며, 1시간 미만인 경우도 6.4%임.

〈표 3〉 남편이 근무 후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
시간 분포	294(6.4)	561(12.1)	3,708(80.2)	59(1.3)	2(0.0)	4,624(100.0)

● 가사노동

-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 실태를 보면 가사노동의 내용에 따라 아내와 남편이 차이를 보임. 우선 식사와 요리준비에 대하여 아내는 거의 매번이 93.1%이며, 남편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51.5%로 나타남.
- 설거지는 아내는 거의 매번이 91.5%로 가장 많고, 남편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45.5%로 설거지 역시 식사와 요리준비와 유사하게 남편 들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탁은 아내는 거의 매번 42.1%, 일주일에 2~3일 35.8%이며 남편은 전혀 하지 않는다 53.8%, 그보다 드물게 23.3%의 순임.
- 쇼핑은 아내는 일주일에 2~3일이 36.5%로 가장 많고, 남편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34.0%로 가장 많음. 집안청소는 아내는 거의 매번이 62.3%로 가장 많고, 남편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32.7%로 가장 많음.

-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내용의 가사노동에 대해 남편의 참여가 미미함이 확인되며, 특히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등에 대해 남편이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 여성 편중이 심한 항목으로 나타남.
- 한편 가사노동 조력자가 있는 비율은 4.9%로 대부분 조력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의 경우는 조력자가 있다는 비율이 6.3%이며 비취업자는 3.1%로 취업자가 가사조력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음.

● 자녀계획

- 자녀 출산 계획은 없는 경우가 93.6%, 있는 경우 4.0%이며, 모르겠음이 2.4%임.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출산계획 있음이 10.4%이며, 40대는 0.6%이며, 취업여부에 따라 보면 출산계획 있음이 취업자 3.7%, 비취업자 4.5%로 비취업자가 약간 높음.
-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는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가 54.6%로 가장 많으며 절반 이상을 차지함. 두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로 21.2%이며,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11.5%)임.

● 미성년 자녀 돌봄

- 미취학 자녀의 혼자 있는 시간은 첫째자녀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0.28시간, 주말 하루 평균 0.19시간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 자녀는 평일 하루 평균 0.23시간, 주말 하루 평균 0.15시간임. 첫째자녀와 두 번째 자녀 모두 주말보다 평일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 평일에 돌봄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초중고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

-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평소 대화 주제는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가 36.0%로 가장 비율이 높음. 두 번째는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학에 대하여’로 23.9%를 차지함.
- 미혼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율은 42.3%이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월평균 58만 8천원 수준을 제공하고 있음. 반면 기혼자녀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18.4%로 나타났고 월평균 30만 5천원 정도를 지원함. 반면 성인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미혼자녀로부터 받는 비율은 15.6%에 월평균 39만 8천원 수준이며, 기혼자녀로부터 받는 비율은 37.3%에 33만 7천원 수준임.

● 결혼관련 가치관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음.
- ‘결혼은 집안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해야 한다’라는 가치관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60.3%로 제일 높음.
- ‘결혼은 일찍 하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47.6%로 제일 높음.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49.6%로 제일 높음

● 가족내 역할 인식

-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40.8%로 제일 높음.
-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라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44.6%로 제일 높음.
-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49.9%로 제일 높음.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 라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58.0%로 제일 높게 나타남.
-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라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53.0%로 제일 높게 나타남.
-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라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43.8%로 나타남.

● 여성 건강

- 스트레스 문항 중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46.9%,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문항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항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53.0%로 가장 높고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문항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54.5%로 가장 높음.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문항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푼다’ 문항에 ‘조금 그렇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문항에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분포 비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우울증 척도인 CES-D 10 우울증을 측정해 본 결과는 여성가족 패널의 16.7%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일자리 특징

● 일자리 적합도

- 현재 일자리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적합한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8%는 일자리와 교육수준이 맞는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낮다(매우 낮다와 약간 낮다를 합함)고 응답함.
- 학력별로 보면 수준이 맞는다는 중학교 졸업 이하인 여성은 92.0%로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은 82.1%로 가장 낮음.
- 연령별로 자신의 교육에 비해 일자리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을 비교하면 40대가 16.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6.3%로 가장 낮음.

-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일자리의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15.4%로 비임금 근로자의 8.8%보다 높게 나타나 임금 근로자의 만족도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만족도

-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복리후생이 2.87로 가장 낮음. 전반적인 만족은 3.20으로 보통인 3.0에 근접했음.

● 일·가족 양립

-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주는 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가 64.6%, 매우 그렇다가 25.9%로서 그렇다가 90%를 넘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렇다가 83.9%,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진다’는 84.4%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렇지 않다가 31%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각각 그렇다가 30.3%, 22.2%로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음.
-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가족부양에 대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대체로 그렇다가 52.7%, 매우 그렇다가 16.6%로 긍정적인 반응이 69.3%임.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의 문항은 그렇다가 74.5%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자녀양육, 가사일, 환자돌봄등의 부담이 본인의 일에 부담이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는 그렇지

않다가 58.4%로 긍정적인 반응이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편임.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44.9%로 가장 높지만 대체로 그렇다가 27.1%, 매우 그렇다가 2.4%가 되어 1/3정도가 집안일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일을 힘들어 하고 있음을 보여 줌. ‘식구 중 환자가 생겨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해당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1%가 그렇다로 대답하고 있어 환자돌봄이 여성 취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줌.

-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생각의 경우 찬성이 48.3%, 반대가 18.4%, 중간이 33.4%로 남편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은 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의 변화 특성

- 본 논문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여성가족패널을 통해 분석한 논문임.
-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고있는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직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비정규직으로 전이한 그룹은 일자리를 그만둔 그룹에 비해 임금(양의 방향), 사업체규모(100인 이상에 비해 양의 방향), 농어업/기능/조작종사자(단순노무자에 비해 양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이외 변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연령, 임금,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농어업/기능/조작종사자(단순노무자에 비해 양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현황과 정책효과

- 본 논문의 중심적인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어떻게 재취업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는지, 어떻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지는지를 분석함.

-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적 숫자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재취업을 하더라도 일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재취업이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재취업시 일자리의 질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함.

■ 성인여성 정신건강 상태 변화와 원인분석

- 본 논문은 성인여성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요인과 패턴을 분석한 논문임.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대인관계적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관계지향적 경향이 있음. 따라서 우울과 함께 기타 다른 관계지향적 변수들을 함께 넣어서 분석하였으며, 여성들이 의사의 임상 진단 후에 겪는 질환들이 존재함으로 이러한 신체증상들도 패널연구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연구에도 결부시키게 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임.

■ 자녀 출산과 우울

- 본 논문은 자녀출산 이후 여성들이 갖는 우울감의 원인을 분석한 논문임.
- 상호작용 효과로 본다면 남편과 관계가 좋을 때 우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한 가지 가설로 가능한 것은, 남편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예상할 수 있음. 더불어 분석 결과에 따라 저출산 사회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우울을 다룸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적 이슈를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임.

■ 취업 기혼여성의 가사노동과 직무만족

- 본 논문은 취업 기혼여성의 가사노동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여성가족패널에 1차에서 5차 웨이브까지 임금노동으로 취업한 유배우, 남편 맞벌이 부부 기혼여성만 추출하여 풀 데이터로 만들어 회귀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비중이 클수록 그 취업 여성들의 일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그것을 서로 일 만족도와 상충되어지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집안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감을 가지면서 그것을 직장일로 가져가서 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주말부부 삶이 여성의 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본 논문은 폐경을 경험한 여성과 아닌 여성을 구분하여 50대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함.
- 50대 여성이 겪는 생애사건의 변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생애사건이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부부관계와 부부관의 활동을 대체자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와 활동 변화에 따라 여성의 스트레스 자각 및 조절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여성가족패널의 변화와 심층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 비정규직의 이행을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정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첫째,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시장 정책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둘째,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경력단절 정책과 연동해서 접근해야 함. 셋째, 50세 이상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되어야 함. 넷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함.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현황과 정책효과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여성은 30대의 재취업률이 높고, 학력은 고졸이 대졸보다 높으며 대졸여성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이에 재취업 정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성인여성의 우울증상 경험률 변화와 원인분석 결과,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우울증 집단에 진입하거나 우울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될 확률이 높고 연령 및 사회적 위치 변인들(교육 수준, 일자리, 혼인상태), 질환 발생 변인들을 보정하고도 스트레스가 증가되면 우울증 진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성인 여성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자녀 및 노인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 병원 내 사회학적 관점의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 방안 마련 혹은 외래환자인 경우 사회학적 관점의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정신보건소와 연계 방안이 필요.

4 기대효과

■ 가족의 변화 파악과 치밀한 가족정책수립

- 여성정책의 핵심적 사항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수립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